

中世時代의 英國會計史 연구*

An Approach to the Accounting History of England in Middle Ages

高 承 禧**

Koh, Seung-Hee

目 次

I. 序 說	4. 教會會計의 展開
II. 中世時代 英國의 社會相	5. 英國의 길드會計
1. 中世유럽社會의 經濟的 特色	IV. 中世經濟社會의 近代化와 英國會計의 成熟
2. 中世英國의 社會相	1. 莊園制 및 길드制의 봉과
3. 古代社會로부터 傳承된 會計形態	2. 中世時代 經濟社會의 近代化
III. 中世時代 英國의 會計的 展開	3. 中世時代 英國會計制度의 成熟
1. 中世時代 英國의 政府會計	V. 結 論
2. 中世時代 英國의 私會計制度	
3. 莊園經濟와 會計制度	

I. 序 說

中世時代의 경제사회가 古代文明社會로부터 이어져온 慣習이나 理念을 기반으로 하여 형성되어진것만은 확실하다. 예컨대, 그리스의 航海術은 古代의 에짚트人이나 페니키아人, 페르시아人 및 그 외의 古代人을 통하여 전수받았다고 할 수 있으며, 古代로마時代의 번성함 속에서 조직적인 관리기법이 전수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史學者들에 의하여 哲學이나

* 이 研究는 1998년도 단국대학교 대학연구비의 지원으로 연구되었음.

** 本 研究센터 常任研究員, 檀國大學 經營會計學部 教授

科學등이 古代社會에서 크게 공헌하고 中世로 이어져 誓음을 인식하게 되었으나, 企業形態나 去來狀況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았다.

더욱이 古代會計는 문헌이나 그에 관한 자료가 거의 전승되지 않은 상태였다. 考古學者들에 의하여 발굴된 粘土版 등의 자료를 통하여 古代社會의 경제상황과 영업활동 그리고 會計記錄에 대하여 유추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그런데 中世時代의 會計技法은 古代社會의 會計보다 약간 구체적인 양상을 띠고 있어서 그에 대한 해석이나 연구가 비교적 가능한 편이었다.

歷史家들에 의하여 정리된 時代區分에 따르면 西洋의 中世期는 게르만民族의 침입에 의하여 로마帝國이 붕괴하기 시작한 5세기부터 東로마제국이 멸망한 15세기 중엽에 이르는 약 1,000년간을 일컫는다.¹⁾ 그러나 西紀 476년에 西로마帝國이 멸망되던 때부터 11세기까지의 기간은 外勢의 침탈로 인한 암흑시대(dark age)를 거치면서 莊園制度를 바탕으로 하는 봉건사회가 정착되어 가던 시기였다. 11세기 이후부터는 「유럽」의 봉건사회가 안정을 가져오게 되었고 農業生產力이 커져 임여의 농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市場이 생겨났으며 都市를 중심으로 商去來가 성행하기 시작하였다. 이 때부터 역사의 무대는 地中海에서 유럽 全域으로 확대되었고 「그리스·로마」文明과 가톨릭教 그리고 「게르만」의 새로운 歷史의 환경 속에 융화하면서 새로운 사회제도를 이루어 나갔다. 이 시대가 「유럽」의 中世라고 부르는 封建主義社會인 것이다.²⁾

따라서 中世時代의 會計制度는 莊園經濟를 중심으로 하는 莊園會計와 教會중심의 教會會計 그리고 商人們을 중심으로 하여 형성된 「길드」會計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모두 단편적인 것에 지나지 않았다. 이러한 회계기법은 中世後期에 複式簿記制度가 성립될 때까지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던 것이다. 本研究에서는 이러한 中世時代의 會計制度가 어떻게 형성되고 발전되었는가에 대하여 中世英國의 봉건사회를 중심으로 검토하는 것을 目的으로 하고 있다.

II. 中世時代 英國의 社會相

1. 中世유럽社會의 經濟的 特色

유럽의 중세봉건사회는 古代社會의 終焉이라 할 수 있는 西紀476년 西로마帝國의 멸망에

1) 이 회승 편, 『국어대사전』(서울, 민중서관, 1971), p. 2,663 ; 閔錫泓, 『西洋史概論』(서울, 三英社, 1995), p. 174.

2) 閔錫泓, 前揭書, p. 174.

서부터 開始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樣相을 띠고 있었다. 첫째, 自由農民이 몰락하고 노예의 경제적 지위가 향상되어 예속적 소작인이 되었으며, 둘째 번성하던 貨幣經濟는 로마帝國末期에 정부의 貨幣改惡으로 인하여 쇠퇴하였으며, 조세의 징수나 군대의 급여가 現物化하는 등, 自然經濟로 되돌아간 것처럼 보이는 현상이었다. 셋째, 국가적 통일은 명목적인 것으로서 屬州遠心主義와 地方分權的인 領主制가 진행되었다는 것이다.³⁾

이러한 中世社會는 게르만民族중에서 프랑크族만이 계속 팽창하여 法王과 一體가 된 찰스大帝에 의하여 西로마領域의 대부분을 지배하려는 帝國建設이 시도되었으나, 결국 분열되어 로마·게르만·가톨릭教의 여러 要素가 통합된 통일체로서의 유럽이 형성되기에 이르렀다. 즉, 정치적 통일체로서의 찰스帝國은 붕괴되고 神聖로마帝國(독일), 프랑스, 영국 등의 소규모 봉건국가가 탄생함으로써, 文化的 統一體로서의 유럽社會가 확립된 것이다. 물론, 유럽의 문화적 통일은 로마·가톨릭教會의 발전을 軸으로 하여 유지되었다. 그런데 비잔틴 東로마帝國은 西로마帝國의 멸망 후에도 地中海의 東부를 중심으로 번영하였고 정치·경제·문화 및 東西交流 등, 다방면에 걸쳐 독특한 세계를 형성하고 있었다.⁴⁾

西部유럽을 중심으로 하는 中世社會의 特色은 從土制(騎士制)와 恩貸地制의 통합에 의한 봉건제도의 성립이었고 領主에 의하여 封土의 농민을 지배하는 莊園制의 확립이었다. 그리고 11세기초부터 상업이 부활하기 시작하여 길드制度가 형성되었던 것이다. 상업이 발전하게 되면서 都市가 出現하였으며, 상인과 手工業者를 중심으로 하는 도시민은 봉건영주의 지배를 구속이라고 생각하고 11세기말부터 自由와 自活을 찾아 自治都市를 탄생시켰다. 더욱이 가톨릭教會와 이슬람世界의 충돌은 십자군원정에 의하여 유럽社會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 즉, 都市를 중심으로 하는 화폐경제가 農業分野에도 스며들어 地代의 金納化가 촉진되었으며, 莊園제도가 해체됨과 동시에 農村工業이 전개되면서 中世末期에는 도시의 길드制度마저도 붕괴되기에 이르렀다.⁵⁾ 이러한 봉건사회의 붕괴는 近代社會로의 移行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2. 中世英國의 社會相

(1) 中世英國史 概觀

유럽의 西北쪽에 위치한 브리타니아(Britania)라는 섬나라 英國은 원주민인 젤트族이 정착한 牧歌的인 農業國이었다. 그런데 BC42年 로마제국의 지배자 시저(Jurius Caesar,

3) 上揭書, pp. 174~216.

4) 上揭書, pp. 216~227.

5) 上揭書, pp. 235~257 & pp. 294~307.

BC. 100~44)가 이곳을 침공함으로써 로마제국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었다. 로마軍에 의한 통치가 西紀 407年까지 계속되었고 농업에 종사하던 젤트族들은 이 기간에 수공업이나 상업으로 전환하여 경제활동에 종사하기도 하였다.

西로마帝國이 西紀476年에 멸망한 후 브리타니아에는 앵글로·색슨族이 침입하여 7개의 王國을 건설하였으나, 9세기초에 에그버트(Egbert, AD829~839)가 잉글랜드(England) 王國으로 통일하였고 알프렌(Alfred, 871~899)大王의 통치시대가 가장 번영한 때였다. 그러나 덴마크系의 노르만人(Danes)이 침공하여 西紀1016年에 카누트(Canute, 1016~1035)王은 잉글랜드를 병합하여 大王朝(Danes, 1016~1042)를 건설하였다. 그 후 에드워드(Edward, 1042~1066)王이 즉위하여 앵글로·색슨王朝를 열었던 것이다. 프랑스의 노르만디公 윌리암스가 全잉글랜드를 정복하여 중앙집권적 봉건국가인 노르만王朝(1066~1154)를 확립한 후에 헨리(Henry)가 왕위를 계승하여 플란타지넬王朝(Plantagenet, 1154~1399)를 開花시켰다. 이리하여 잉글랜드의 王은 프랑스王의 최대 封建家臣으로서 프랑스西北部의 광대한 지역을 封土로 다스리게 되었다. 따라서 대부분의 귀족들은 英佛兩國에 領地를 소유하고 프랑스의 언어·습관·제도에 동화되었으며, 전통적인 앵글로·색슨文化는 라틴系의 大陸文化와 융합하여 英國의 독자적인 문화를 탄생시켰다. 12세기 후반에 아일랜드를 정복할 정도로 王權을 강화했으나 리차트1世(Richard I)의 十字軍遠征은 재정지출을 증가시켜 下級貴族이나 市民의 불만을 가져오게 하였다.⁶⁾

그 후 존王은 프랑스王 필립2세와 싸워서 결국 노르만디를 비롯한 프랑스內의 영토를 잃게되었고 로마法王과의 싸움으로 破門되어 國王의 권위를 실추시키기도 하였다. 그 때문에 봉건귀족은 결속하여 반항하였으며 상인들로 구성된 市民들이 참가하여 國王을 굴복시켰던 것이다. 즉, 1212年에 공포된 마그나·카르타(Magna Carta) 大憲章이 그것이다.⁷⁾ 그 내용은 귀족의 봉건적 특권을 인정하는 것이 대부분이었고 런던市의 권리이나 자유민의 생명·재산을 보장하는 것 등을 규정해 놓은 自由의 憲章으로서 英國憲政史上 중요한 意義를 갖는 것이다.

그 후의 헨리3世(Henry III)는 大憲章을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失政을 거듭하였기 때문에, 귀족들에 의하여 1258년의 國政改革綱領인 옥스퍼드條項을 확인시키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헨리3世는 로마法王 및 프랑스王과 결탁하여 그 條項을 폐기하려고 하였다. 1265년에 프랑스系의 貴族인 시몬·드·몽포르(Simon de Montfort)는 議會를 소집하였다. 이것은 대귀족이나 고위성직자에 의한 종래의 封建會議에 各州(Shire : 騎士)와 各都市

6) 山中謙二, 『西洋史』(東京, 有信堂, 1961), pp. 30~100.

7) 마그나·카르타 大憲章은 全文 63조로 구성되어 있다. 徵稅에 관한 국왕의 권한을 제한하고, 신하의 기득권을 인정하며, 정당한 재판을 받지 않고 자유민의 재산을 수나 체포 또는 추방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이다. 이것은 1628년의 권리청원 및 1689년의 권리장전과 더불어 英國憲政의 기초가 된 것이다.

(borough : 市民)의 대표 2명씩을 첨가한 身分制議會로서 英國議會(Parliament)의 기원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에드워드 I 世(Edward I, 1272~1307)의 시대에 模範議會를 개최하여 兩院制議會의 원형을 만들었다. 議會는 에드워드3世(1327~1377)의 시대에 들어와 서민계층의 성장을 반영한 귀족과 성직자로 구성되는 上院(House of Lords)과 州의 騎士 및 시민대표로 구성되는 下院(House of Common)으로 나누어진 兩院制가 1314년에 성립되었다. 이에 따라 下院은 課稅協贊權을 합한 法律制定權을 갖게 되었고 점차 立法部로서의 성격을 갖추었던 것이다.

(2) 百年戰爭의 영향

西紀 1337年부터 1452年에 이르기까지 英·佛兩國의 王권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충돌하여 계속된 전쟁이 소위 백년전쟁이라는 것이다. 그 발단은 프랑스의 카페王朝의 후계자가 단절되어 1328년에 밸로아(Balois)家의 필립6세가 왕위를 계승하게 되자 카페王朝의 外孫인 英國王 에드워드3세가 왕위계승자임을 주장한 데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은 노르만王朝이래의 英國王이 프랑스國內에 소유하고 있던 봉건영토에 대한 상호분쟁이다. 그래서 모직물공업지대인 「프란들」의 쟁탈전이 두 나라 사이에 死活을 건 싸움이었다. 이는 영국이 中世 최대의 羊毛產出國으로서 이 지방의 수출에 특별한 경제적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물론, 프랑스도 이 지역의 영유권을 주장하여 직접 지배하려고 하였다. 더욱이 포도酒生產의 중심지인 프랑스南西部의 「기엔스」地方까지도 쟁탈의 표적이 되어 전쟁은 계속되었던 것이다.⁸⁾

두 나라의 싸움은 단편적으로 계속되었다. 처음에는 에드워드黑太子(Edward, the Black Prince, 1330~1376)가 지휘하는 영국군이 승승장구하여 영토를 계속 점령해 나갔다. 그런데 전쟁말기에는 프랑스王 칠스7世(Charles, 1422~1461)가 요충지인 오를레앙(Orleans)에서 영국군에 포위되어 패망하게 되자, 西紀1429년에 잔·다크(Jeanne d'Arc, 1412~1431)라는 소녀가 出戰하여 그 포위망을 돌파하고 기적적인 승리를 거두게 하였다. 그리고 자·콜(Jacques Coeur, 1395~1456)이라는 富豪가 거액의 재정지원을 함으로써 전력을 강화하여 프랑스軍의 사기가 충천하게 되었고 결국 英國군을 격퇴하는데 성공하였던 것이다.⁹⁾

영국과 프랑스 두 나라는 이 백년전쟁으로 인하여 봉건사회가 붕괴되고 중앙집권적 체제

8) 閔錫泓, 前揭書, pp. 310~312.

9) 上揭書, pp. 315~317.

가 확립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즉, 전쟁에 패배한 영국의 王權은 프랑스와의 복잡한 봉건 관계를 청산하고 스스로의 발전을 모색하게 되었다. 이는 영국王權이 대영제국의 건설을 위한 민족적인 정치과제를 실천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백년전쟁중의 1399년에 폴란타지 네트王朝가 후계자 없이 斷絕되었기 때문에 傍系인 랑카스타(Lancaster)家와 요크(York) 家와의 王위계승권을 놓고 內戰이 일어났다. 30년간(1455~1485)에 걸친 전쟁이었다. 랑카스타家에서는 赤色장미의 紋樣을, 요크家에서는 白色장미의 紋樣을 사용했기 때문에 장미 전쟁이라고 일컫는다.¹⁰⁾

결국은 1485년에 랑카스타家의 헨리가 요크家의 國王 찰스3世(1483~1485)를 몰아내고 튜더王朝(Tudors, 1485~1603)를 創始하였던 것이다. 이 시기의 헨리7세는 전쟁으로 인한 귀족과 기사집단의 몰락에 편승하여 중앙집권체제를 확립하였고, 왕권을 강화하였다. 그리하여 헨리8세가 왕위를 계승한 다음의 英國은 절대왕정을 확립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 때부터 영국은 독립국가로서의 체제를 확고히 다져나갔다.

3. 古代社會로부터 傳承된 會計形態.

古代文明은 로마帝國의 전성기에 편승하여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으며, 로마의 會計는 古代의 에짚트·바빌로니아·그리스時代에 발달한 것과 같은 유형의 것이었다고 한다. 로마帝國의 전성기에 商業은 외국상인들의 영향을 받아 성행하였고 예술이나 과학·경제 등의 모든 분야에서는 헬레니즘(Hellenism: 그리스 文化主義)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고 한다. 그러한 사회경제적 환경 속에서 로마帝國은 시민이나 국가의 고유재산을 관리하는데 會計報告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古代로마의 國庫會計가 古代諸國 중에서 가장 상세하고 정교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에서도 추정할 수 있다.¹¹⁾

더욱이 오늘날 기업회계의 기초가 되어있는 複式簿記의 가장 기본적인 用語의 발생이 로마에서 발견된 것도 그 한 증거이다. 이것은 元帳記入에 따라 이루어진 로마市民의 私的計定을 재판의 증거자료로 채택되었던 것에서 찾을 수 있다. 古代로마人の 會計記錄은 오늘날의 分개장이나 원장 비슷한 계정기록부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비망록이나 일기장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日記帳의 기입은 매일 轉記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모든 기록은 家長이나 組織의 長이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었다고 한다.¹²⁾

로마시대의 사업형태는 古代그리스의 그것과는 기본적으로 다르고, 국가와 私設銀行의 양

10) 上掲書, pp. 320~321.

11) 濱田弘作, 『會計史研究序說』(東京, 多賀出版, 1986), p. 100.

12) Woolf, A. H., *A Short History of Accountants and Accountancy*(London, 1912, reprinted 1968), p. 7.

쪽에서 번성하였다. 국가는 관련법을 제정하여 감독을 행하면서 사업의 집단형태를 취하도록 기여하였다. 당시에 성행했던 동업자조직인 「칼레지오」(Colleges; Collegio)는 현대의 회사와는 다르며, 로마社會에서 일반시민의 이익공동체로서 구성된 단체의 하나였다. 여기에는 각자의 자본계정이 설정되어 독립적으로 계산되었다. 이것은 로마共和政時代의 私的인企業의 대표적인 것으로서 정부의 요청으로 경제적 조직으로 이용됨과 동시에 정치적 실체로서도 이용되었다고 한다. 로마時代의 「칼레지오」는 훗날 會社形態로 발전해 갔으며, 中世社會의 「길드」(Guild)로 탈바꿈하여 古代로마인의 共同體意識이 전승되었다.

그러나 古代社會에서 대규모로 상업이 발달되었다고는 하지만, 그 상업의 회계방식은 「스토아」會計(저장품회계)를 능가할만큼 발달하지는 않았다. 즉, 특수한 시점에서의 富의 계산방법이 문제시되었을 뿐이었다. 로마帝國과 같이 古代社會에서 범영을 구가했던 나라에서는 이익과 손실에 관한 회계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그에 따라 로마인 古代社會의 전통적 회계방식인 「스토아」會計에 「수입·지출」(Charge and Discharge)의 완전한 조직구조를 접목시킨 것은 會計史上 의미있는 일이다. 그러나 초기의 「수입·지출」에 의한 기록이나 손익계산이 근대적인 계산서로 전개되기까지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다.¹³⁾

중세영국이 古代社會로부터 전승된 회계는 古代에짚트時代의 記錄官이 國庫會計로 사용했던 선구적인 방법이었다고 한다. 국고회계는 古代그리스·로마時代에도 행해지고 있었던 것으로서, 정확하게는 西紀529년의 유스티니아누스法典(Justinian Code)의 상법규칙과 회사구조에 관한 규정을 촉진시킨 로마인의 공헌이 매우 컸다. 그러나 「수입·지출」會計의 형태를 갖춘 것은 아니었다.¹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회계방식이 古代英國의 경제사회와 관련된 회계의 기초가 되었다는 것은 역사의 흐름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상상할 수 있다. 상업적 교환경계가 일반화되어진 사회에서는 회계적 규정의 탄생과 발달은 필연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III. 中世時代 英國의 會計的 展開

1. 中世時代 英國의 政府會計

古代會計의 主體는 군주나 국왕의 政府 또는 國庫에 귀속되어 있었다. 古代의 政府會計는 公衆을 규제하거나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종교, 사회 및 경제생활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다.

13) 濱田弘作, 前揭書, pp. 100~101.

14) Woolf, A. H., *op. cit.*, p. 7.

따라서 會計는 國庫나 教會에 속하여 軍資金의 지출, 정부의 공식행사 및 재정상의 徵稅를 수행하기 위하여, 모든 조직을 규제할 목적으로 이용되었다. 이 時代의 會計는 재정적인 수입·지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會計責任을 여기에서 찾았다. 英國의 政府會計시스템은 국왕의 재정상의 대리인인 財務省에 있었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會計는 西紀1130년부터 1131년까지 쓰여진 「파이프·롤」(Pipe Roll)이다. 이것은 영국왕의 대리인 執政長官(Sheriff)이 年度報告書에 상세한 항목을 기재한 것이다. 執政長官은 국왕이 소유하는 收入을 財務省에 송금하고 그 내용을 기재하였다.¹⁵⁾

領主의 封土¹⁶⁾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된 수입액은 토지대장(Domesday Book)¹⁷⁾에 기입하였다. 이것은 국왕이 군사상의 필요에서 住民台帳·王宮의 재정 및 農業台帳을 보완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이다. 國王의 재정은 왕이 소유하는 債券 전부를 기록한 「파이프·롤」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집정장관으로부터의 송금은 최초에 기입한 「파이프·롤」의 그것과 일치할 경우에만 승인되었다. 「파이프·롤」의 내용은 수입·지출에 관한 것이었다. 가장 오래된 것은 라틴語로 쓰여져 있으며, 거기에 이용되고 있는 아라비아數字는 수입·지출의 계산을 간단·명료하게 하려고 한 것이다. 「파이프·롤」은 王命으로 매년 監查長官의 감사를 받으며 그는 왕궁의 기록을 상세하게 조사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재무성기록이나 年度監查의 계정에 기입된 것은 가장 정밀하게 작성되었다고 한다. 만일 잘못된 보고서의 제출이나 오류의 발견이 지적되었을 경우에는 집정장관이 투옥되거나 경질되었다고 한다.¹⁸⁾

中世의 英國에서 행해진 國庫會計의 성격은 프랑스의 국왕 샤를마뉴(Charlemagne : AD 742~814)가 조직적으로 封土를 제공하여 왕실재정의 징수를 기하였으나, 결과적으로는 경제조직의 효율화를 높이게 되었다.¹⁹⁾ 이 조직적인 土地와 財產의 완전한 기록은 古代社會의 記錄官이 사용한 財產目錄法(Inventory method)의 會計를 의미한다. 이는 노르만인이 정복한 이후 영국의 불안정한 土地狀況은 개인이 소유하는 토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徵稅를 하기 위하여 상세한 目錄을 작성할 필요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中世英國의 재산목록은 윌리암왕이 國庫財政의 원천을 확보하기 위한 일환으로 查定에

15) 濱田弘作, 前揭書, pp. 101~102.

16) 領主의 封土는 國王의 소유로 되어있고 各領主에게 貸與한 것처럼 협정하고 領主로부터 租稅를 國王이 징수하는 封建領土를 일컫는다.

17) Domesday Book은 윌리암征服王이 종래의 앵글로·색슨系의 大土地所有者로부터 물수한 領地를 노르만人에게 재분배하기 위하여 작성한 土地台帳이다. 이것에 의하여 1522년 까지 徵稅를 도모하였고, 중앙집권적 통건제의 기초를 다진 英國의 경제적 조사문서이기도 하다.

18) Brown, R., A History of Accounting and Accountants(Edinburgh and London, 1905, Reprinted 1968), p. 43.

19) 칼스大帝(Chales, the Great)는 게르만部族을 하나의 프랑크王國과 가톨릭教會로 통합하여 민족대이동 이후의 혼란된 西유럽지역을 안정시켰고, 왕권과 교권의 결속을 통하여 東로마帝國의 간섭에서 벗어났음을 물론, 古代文化·가톨릭教會·게르만民族精神의 三要素를 융합하여 하나의 文化世界를 탄생시켰다. 그는 후에 西로마帝國의 皇帝가 되었다.

이용되었다. 따라서 최초의 政府統計調查表(Questionnaire)는 왕실조사관이 봉건영주로부터 받아야 할 모든 내용을 표시한 것이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되어있다. 즉, 거기에는 우선 莊園名, 재산평가액, 농기구 및 勞役者數를 기재하였고 이어서 강변의 牧草, 삼림, 목초지, 어장 및 물레방아의 數도 기록하였다. 더욱이 각각 종류별로 계산을 행하고, 최종적으로 과거에서 현재까지의 모든 생산량을 측정하지 않으면 안되었다.²⁰⁾

2. 中世時代 英國의 私會計制度

6世紀에 이르러 제정된 유스티니아누스法典은 중요한 商業規則을 마련한 것이다. 이 法典은 여러 나라의 법전을 모방하여 편찬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전 유럽에 영향을 주었으며, 그 속의 法律이나 會計規定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 여겨졌다. 英國은 西紀1066년의 헤스팅스戰爭으로 노르만法을 확고히 다지고 강력히 시행하였다. 영국 최초의 통치자 윌리암의 法律은 그에게 반항한 색슨族이 소유하는 재산을 몰수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1066년의 정복왕 윌리암스로부터 1154년의 헨리3세에 이르는 시기는 노르만王朝의 통치시대였다. 이 시기에 각 장원의 봉건적 경영은 점차 감소되어 갔다. 그 이유는 전리품으로 얻은 재산이 새로운 지배계급에게 재분배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책은 中世 영국의 경제구조에 있어서 중요한 농업이익을 획득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西紀1086년에 윌리암스王은 농업통제를 통하여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다고 한다.²¹⁾

여기서 영국정부는 법률이나 課稅制度 등을 정비하여 국가체제를 공고히 다져나갔다. 英國 재무성이 실시한 會計方式을 보면 다음과 같다. 즉, 왕실재정의 관리를 개혁했을 뿐만 아니라, 私的인 去來를 하는 共同體나 개인도 計定記入方法을 사용하도록 하였다.²²⁾ 헨리2세 시대의 재무성 회계는 상당한 연구를 통하여 실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영국의 국고회계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私的인 상업회계도 존재하고 있었다. 11세기의 영국의 상업은 古代地中海의 여러 나라나 中東諸國과 같은 수준이었으며 아직도 곡물생산국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므로 私的會計를 상업회계에 적용할만한 회계방법은 農業生產記錄을 통해서만 이루어졌을 뿐이다. 농업은 이 시대의 유일한 산업기반이었다. 13세기에 들어와서 토지소유가 일반화되고 잉여생산물의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20) Brown, R., *op. cit.*, p. 78.

21) Zimmerman, V. K., "British Background of American Accountancy", (Unpublished Ph. D. Thesis, Univ. of Illinois), p. 17 ; Arthur Hassalle, *Handbook of British History* (London, McMillan and Co., 1920), p. 66.

22) Brown, R., *op. cit.*, pp. 47~49.

여기에서 회계실무가 등장하게 되었다고 한다. 즉, 12~13세기의 영국은 종교조직이나 성직자가 소유하는 土地가 많았다.²³⁾

따라서 英國의 私會計는 13세기에 그 모습이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西紀1265년의 Eleanor Countess of Leicester의 "Household Roll"은 그 대표적인 것이다. 이會計에 대하여 브라운은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라틴語와 로마數字로 쓰여진 이 計定은 모두가 여백없이 쓰여졌고 재무성計定과 유사한 형식이다. 그리고 이러한 형식은 句節마다 합계액을 표시하고 있다. 그러나 기간 중에 발생한 인건비와 경비를 기입하고 중요한 금액은 欄外에 기입하고 있다. 모두가 셀링, 펜스 및 파운드로 환산함이 없이 끝말에 기입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입의 결점은 기록부의 뒷면에 기입한 계정이 금액란을 명확히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²⁴⁾

3. 莊園經濟와 會計制度

중세시대의 경제활동은 봉건제도인 莊園制가 기본적인 것이었다. 따라서 여기서는 英國의 장원제도와 莊園會計에 대하여 언급하려고 한다.

(1) 莊園制度의 概要

중세시대의 莊園制度는 大土地 所有者의 형성과 직접적인 생산자인 農民의 農奴化에 의하여 로마적인 전통과 게르만적인 전통이 결합되어 이루어진 것이다. 그것은 中世時代가 화폐량의 결핍, 좁은 市場, 허약한 政府, 전쟁의 발발 및 약탈과 무질서로 인하여 莊園과 같은 규율있는 社會와 최적의 직업조건이 부족한데서 비롯되었다. 중세사회의 莊園(manor)은 정치·경제의 중심축으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領主는 莊園을 지배하고 경제적인 의무로서 農奴에 대한 賦役(勞動地代)課稅나 司法行政 및 경찰권력을 행사하였다. 동시에 領主는 國王에게 복종함으로써 장원과 왕과의 관계에서 전권을 향유하였던 것이다. 특히 영주의 재판권행사는 농민을 지배하기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와 같이 莊園領主의 지배는 단순한 경제적 지배뿐만 아니라 社會機構의 면에서도 특권을 가지고 있었다. 예컨대 전형적인 莊園은 莊園廳을 중심으로 하여 교회나 農家가 모여 있고 그 주변에 경작지, 목장 및 삼림 등의 公有地가 있었다. 거기에서는 예배, 법률, 관습의 완전한 통일, 莊園內에서의 결혼 등, 동질사회집단으로서의 행동이 이루어졌다. 莊園 그 자

23) Green, W. L., *History and Survey of Accountancy*(Brooklyn, Standard Text Press, 1930), p. 47.

24) Brown, R., *op. cit.* p. 49.

체는 경제단위로서 實體의 기반을 확립하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존재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莊園은 土地가 재산권의 기초가 되었고 갖고있는 封土를 통하여 人的支配를 행사하는 莊園領主와 피지배자인 莊園農民과의 分化가 되어 있었다. 領主는 소유지를 몇 개의 경영단위인 莊園으로 나누어 갖고 있었다. 大領主일수록 여러개의 莊園을 갖게 된다. 莊園主가 각각 소유하여 운영하는 農業經營시스템을 莊園제도(manorial system)라고 부른다. 13세기에 있어서 영국, 독일 및 프랑스의 대부분이 전형적인 경영단위로서의 莊園經濟가 형성되어 있었다.²⁵⁾

(2) 莊園의 記錄과 會計士

13~14세기에 영국의 私會計發達은 莊園記錄이 중요한 공헌을 하였다. 헨리2世時代의 「파이프·롤」을 모델로 한 莊園記錄은 봉건시대의 활동기록으로서 대표적인 것이다. 莊園의 執事記錄은 영주가 투자극대화에 따른 상세한 기록과 장원의 수입·지출에 관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거기에는 記述形式이지만 일련의 보고서가 있었다. 오늘날의 재무제표와 유사한 것이다. 특수한 직업으로서의 會計士制度는 봉건적인 장원사회에서 통치제도와 관련되어 발달하였다. 그러나 회계사가 집행관, 집사 및 감사인 등과 어떠한 수준에서 장원경제에 종사하였는가에 대해서는 확실하지가 않다.

莊園內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상호의존관계를 가지며, 권리와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정확한 기록을 행하였다. 執事는 마을 전체의 경제생활에 관한 책임을 지고 莊園計定에 기록하게 된다. 그는 노동이나 労役을 면제하는 대신에 귀중한 會計責任을 갖고 있었다.²⁶⁾ 그는 영주에 의하여 선량한 農民중에서 선임되었다. 장원의 중요한 임무는 執事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執事(Steward)는 장원내에서 회계직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었던 것이다. 즉, 집사는 장원의 회계사라 할 수 있다.

(3) 莊園會計

莊園의 會計士인 執事が 年度末에 제시한 회계기록은 많은 사례를 제공하였다. 집행관, 代官 및 다른 吏員은 國王(또는 地方長官)의 대표자에게 왕실수입에 관한 보고를 행할 때, 그들의 출납상황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年次會計는 「미카엘」祭(Michaelmas : 9월 29일)에 행하는 宗教上의 秋祭²⁷⁾에 제출되었다고 한다. 각 莊園의 성과로서 일련의 年次計算書

25) 濱田弘作, 前揭書, p. 105.

26) Zimmerman, R., *op. cit.*, p. 26.

27) 天使長인 聖미카엘 및 모든 천사의 祝日이다. 英國에서는 1년에 네번 큰 祝祭를 행하는데 그중의 하나로서, 이를 Quarter Day라고 한다. 즉, ① 3월 25일의 Lady Day, ② 6월 24일의 Midsummer Day, ③ 9월 29일의 Michaelmas, ④ 12월 25일의 Christmas의 4가지 祝祭가 그것이다.

(出納報告書)가 작성되었던 것이다.²⁸⁾

初期莊園의 會計記錄은 영국의 회계발달을 다소 인식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은 변화와 개혁의 시대적 상황을 나타낸 기록으로서 중요성을 지닌다. 帳簿나 증빙서류들은 국가기록으로서 격동하는 시대의 상황변화를 찾아볼 수 있게 하며 경제사적 관점에서 연구할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이다. 특히 出納計算의 기록은 현존하는 莊園記錄에서 찾아 볼 수 있으므로 당시의 거래내용도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다고 한다. 年次出納報告書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다.

『라틴語로 기록된 것의 경우에는 會計擔當者の 능력이 있음을 찾아볼 수 있다. 여기에 표시된 수치는 欄이 정리되지 않은 채 기재되어 있으며, 出納計算은 중세시대의 수치에 의해 記述되어 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항목을 추가적으로 기입하여 복잡하게 기입한 것도 있으며 가끔 文末에 표시되어 있다. 거기에는 상품의 매출, 농산물의 수확량 등, 여러 가지 항목이 段落으로 기록되어 있고 각 단락의 끝 부분에 합계가 산출되어 있다.』²⁹⁾

회계담당자인 執事의 임무는 莊園의 출납계산서를 작성하는 일이다. 그는 年1回, 그 출납계산을 정확하게 보고서의 형식으로 작성하여 제시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러한 莊園의 帳簿書類에 대하여 會計學者 「울프」(Woolf)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로 구분하였다.³⁰⁾ 즉, 첫째, 計定目錄(Account Rolls), 또는 집행판이나 代官에 의한 「콤포티」(Compoti)라 부르는 것이고, 둘째, 조사표(Extenta of Survey) 또는 在庫調查表이며, 셋째는 裁判目錄(莊園裁判의 판결기록) 등이다.

莊園의 執事에 의해 작성된 이들 帳簿書類 중에서 첫째와 둘째의 서류만이 莊園計定으로서 출납계산에 관한 증빙서로 이용되었다고 한다. 이것을 현대의 것과 비교해 보면, 손익계산서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計定目錄은 장원의 수입과 지출을 모두 서술적으로 기록하였다. 計定目錄은 莊園의 年間利益計算을 산출하기 위하여 현금기준에 의한 계산이 이루어졌고 매우 정확한 것이었다.

조사표에 해당하는 서류는 주로 莊園裁判에 이용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으며 법적인 증명서로서 되어 있다. 그리고 이 조사표는 莊園의 고정자산과 유동자산의 목록표로서 활용되었다. 거기에는 해당되는 자산항목마다 금액표시가 되어 있었다. 조사표에 기입된 정보를 기초로 하여 執事는 莊園領主의 일년간 수입을 산출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오늘날의 대차대조표에 해당된다.³¹⁾

28) Zimmerman, R., *op. cit.*, pp. 23~24.

29) *Ibid.*, p. 24(foot note 28); A. E. Levett, *Studies in Manorial History* (Oxford : Clarendon press, 1938), pp. 42~43.

30) Woolf, A. H., *op. cit.*, p. 81.

31) Brown, R., *op. cit.*, p. 53.

4. 教會會計의 展開

유럽文明이 그리스도教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 中世時代의 教會는 신앙, 세례, 그리스도思想 및 조직구성에 있어서 통일되어 있었다. 로마法王은 신앙 생활에 큰 영향을 주었고 教會는 모든 종교행사나 정신적인 면에서 절대적이었다.

이 시대에는 모든 인간이 기도나 종교의식의 教會哲學을 통하여 유도되었다. 그러므로 경제활동으로 얻은 利子는 교회사상에 의할 때 죄악이라고 보았던 것이다. 이러한 教義는 이 자를 놓는 자금대여를 장려하지 않았다. 즉, 자본시장에 관한 莊園의 결함은 중세사회의 특징이기도 했다. 17~18세기에 각광을 받은 資本, 소위 動的資本主義經濟는 중세시대만 해도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중세의 상업은 利子의 受取를 일종의 죄악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세의 教會나 궁전의 計定記錄은 회계기장의 형태로서 발달한 것이다. 이들 종교 상의 기록은 앞에서 언급한 「파이프·롤」로서 그 과정을 추적할 수 있다. 教會의 회계기록은 莊園의 기록과 흡사한 출납형식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종교기록의 구조는 執事職(stewardship)에 의한 수입지출표, 상품재고표(schedule of inventory of stock) 및 保守概念을 기초로 하여 형성되어 있다.³²⁾

교회기록에 관한 것은 손익액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莊園내의 교회에서 儀式行事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과 지출을 기재하는 계산시스템이 주종을 이루었던 것이다. 教會의 保守者인 주임회계관은 收入支出計算書를 통하여 執事職을 증명하게 되어 있었다. 즉, 재고 조사표는 會計를 증명하기 위하여 첨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5. 英國의 길드會計

(1) 길드의 발생

중세의 莊園은 司法權을 갖고 사회제도를 관掌한 농업중심의 경제구조였다. 산업은 莊園이 생산하는 產物을 기초로 하여 생겨났다. 영국에 있어서 중세초기의 經濟는 자급자족이 기본이었고, 農奴는 자기가 생산한 모직물이나 麻布로 의복을 만들고 여러 가지 필요한 물품을 만들어 사용했다. 그런데 11세기에 있어서의 莊園은 대규모로 발전하였고, 장원영주는 장원내에서 농업화나 분업화를 촉진시켰다. 제분업, 빵집, 대장간, 石手, 가죽제조업, 염색업, 고기저장업 및 세탁업 등이 존재하고 있었다.

32) 濱田弘作, 前揭書, p. 109.

이러한 직업의 발생은 같은 제품을 만드는 사람들끼리 모여 집단적인 기술자 조직이 이루어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들 조직은 상호보호, 협정 및 이익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이익단체인 길드(Guild : 同業組合)를 결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길드는 구성원이 갖는 경제적 특권, 즉 집단적 특권을 향유하며 商人的 동업조합인 商人길드(Merchant guild)와 수공업자의 결합체인 職人길드(Craft guild)가 있었다. 당초의 길드構成員은 자기의 점포나 도구를 가진 自由民이고 그들과 去來를 하는 다른 지역의 職人도 가입하기에 이르렀다. 중세의 職人길드는 원래 로마時代의 동업자단체인 폴레지오(Collegio)를 계승하였으나, 9세기에 독일莊園의 영향을 받아 이루어진 것도 있었다. 그러나 중세의 경제상황이 호전되면서 동업자끼리의 결속이 필요하게 되어 길드조직은 더욱 영향력 있는 단체로 발전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길드의 方策은 길드構成員 상호간의 상부상조를 기하고 내부적으로는 원료의 확보 · 제조방법 · 노동시간 · 제품가격 · 기술관리 등을 조정하였고, 대외적으로는 市場의 독점정책에 있었다. 이러한 통제는 점차 생산활동에 방해되는 경우도 있었으나, 市民活動을 보증하고 길드나 자치단체의 성장에 매우 유익한 것으로 작용하였다.³³⁾

길드가 성행하던 이 시기에는 인구가 상대적으로 고정되어 있어서 안정적인 需要가 유지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길드의 구성원이 시장에서 자기상품을 늘리고 판매가격을 내려 市場擴大를 하려고 하면, 필연적으로 다른 구성원의 市場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 시대의 종교개념으로는 일시적인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사람을 싫어하였다. 따라서 시장을 교란시켜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것은 죄악시되던 때였다. 길드가 형성됨으로써 직업인으로서의 바람직한 자질 향상이 이루어졌고 이익공동체로서의 결속유지도 가능했던 것이다. 그리고 길드의 형성은 모든 행정상의 효익을 가져다주었다. 다시 말하면, 英國의 국왕은 「돔스데이·북」(Domes-day Book)을 관리할 목적으로 재정기록을 하게 하였고 왕실의 관리 및 통제 그리고 課稅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길드의 직업별 조직을 장려하였다는 것이다.

(2) 길드會計의 特徵

14세기까지 莊園에 있어서 농업경제의 발달에 대응하여 길드조직도 이 시기에 영국의 농촌생활에 착실히 진출하였다. 길드조직의 職人組合員數는 중세 영국의 대표적인 지역에서 市民을 흡수하여 늘어갔다. 예컨대, 런던은 당시 중요한 도시상황을 보여주었으며, 14세기에는 동업조합으로서의 livery companies라는 길드가 조직적으로 상당한 수에 이르렀다고 한다. 이 길드조직은 귀족적인 동업조합이었다고 하며 그 대부분은 거액의 資金을 가진 종교단체와 결부되어 있었다.³⁴⁾

33) 上揭書, pp. 110~111.

34) Zimmerman, V. K., *op. cit.*, p. 29.

길드조직의 회계기록은 거래상황을 완전히 기술하는 것이었다. 예컨대, 길드의 영수서는會計官이라고 하는 監視人(Warden)이 발행한 것이며, 회비의 징수나 길드組合員에게割當한 것을 증명해 주었다. 추가로 할당한 금액이나 평상시의 범칙금이 길드조직의 수입원이었다. 監視人은 주로 길드會館의 유지, 조합원의 연회 및 주변종교단체에 대한 기부금과 함께 길드조직의 경비를 지출하였던 것이다. 莊園執事が 기입한 것을 보면, 초기 런던동업조합의會計計算書는 수입지출표(Charge & Discharge)가 고작이었다고 한다. 수입지출표는 책임의 수탁과 이행에 관한 대리인(집사)의 보고서이다. 장원의 집사는 장원수입·외부수입·가축의 자연증가를 수입(Charge)이라 하고, 현금지출·손실 및 資源의 사용을 지출(Discharge)이라고 하여 기록하였던 것이다.³⁵⁾

길드의 年次損益計算은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었지만, 수입과 지출의 단순한 겹증을 함에 있어서 길드출납계의 공정함을 확인시켜줄 수 있는 것이었다. 길드의 조직과 발전은 중세기말 르네상스期의 경제로 이어지는 징검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였다. 장원회계에 있어서의 길드會計는 交易·人口·경제적, 사회적 측면에서 볼 때 전략적 변화의 원동력이 되었으며 중세영국회계제도의 발전을 가져오게 할 정도로 정비되고 치밀한 구조로 상인들 사이에서 이용되었던 것이다.

IV. 中世經濟社會의 近代化와 英國會計의 成熟

1. 莊園制 및 길드制의 붕괴

중세상업의 융성은 도시의 화폐경제를 발전시키고 농촌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 그리고 농산물의 상품화는 소비재의 수요를 증가시켰다. 이 때의 領主階級은 사회적 지위에 맞는 생활을 해야 했으므로 많은 비용이 필요했고 수입증대를 위한 장원경제의 합리화를 기하게 되었던 것이다. 즉, 領主直營地를 분할하여 農民에게 貸與함으로써 貢稅라는 생산물지대를 부과하는 형태로 영주의 수입증대를 도모하였다. 화폐경제의 발달로 地代의 金納化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으며, 解放金의 지급에 의한 農奴의 자유를 촉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地代形態의 변혁과 농노의 해방은 일시적으로 領主의 수입을 증대시켰으나, 결국 생산자인 農民을 유리하게 하였다. 지급지대의 화폐를 마련하기 위하여 농민은 農產物을 시장에 내다팔지 않으면 안되었고, 자급자족하던 莊園經濟로부터 탈피하여 시장과 관계를 가진 상

35) Chatfield, M., *History of Accounting Thought*, (New York, Robert and Winston Co., 1973), p. 25.

품생산자로 전환하게 되었다. 地代의 金納化는 農產物價格을 상승시켰고 농민의 잉여농산물을 축적하는 여유를 갖게 하였다. 모든 세금은 화폐로 지급하게 되었으며, 농민의 경제력은 물론, 사회적 지위도 향상되었던 것이다. 이리하여 독립된 自營農民階層이 성립하였음은 물론, 土地를 갖지 못한 농업노동자계층이 나타났던 것이다. 領主는 농민의 생산물지대와 화폐지대에 더불어사는 地主가 되어서 결국 봉건사회의 상징인 莊園制度가 해체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農民階層의 지위향상은 잉여농산물을 축적하게 하였고 自力으로 織機를 사들여 麻布나 모직물을 생산하여 상품화하는 農村工業을 탄생시켰다. 이러한 농촌공업은 都市길드의 규제를 받지 않은 것으로서 값싼 노동력과 제품을 공급하게 되어 길드의 영업독점을 타파하는 시발점이 되었다. 즉, 都市의 수공업자길드는 농촌공업의 발흥으로 인하여 점차 붕괴되어 갔던 것이다. 농촌공업은 15세기 이후에 이르러 산업의 자유화를 요구하는 신흥산업자본가를 출현시켰다. 농촌공업의 발달은 모직물공업을 육성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都市길드의 붕괴로 임금노동자계층이 형성되었음은 물론, 商人資本에서 產業資本으로 전환되는 전환점이 되었던 것이다.³⁶⁾

2. 中世時代 經濟社會의 近代化

중세시대에 있어서의 경제적 기반은 莊園制와 길드제였으나, 그것들의 붕괴는 中世社會의 경제적 근대화를 촉진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원래 봉건영주가 農奴에 의하여 생산된 농산물을 징수하는 단순재생산의 형태였으나, 莊園制의 붕괴와 農奴의 해방으로 인하여 자주적인 생산농민이 잉여농산물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자유농민 계층은 서서히 所有土地를 넓혀가며 확대재생산을 하는 富農層과 土地를 보유하지 못한 貧農層으로分化되었다. 前者は 농촌공업을 일으킨 새로운 資本家層을 출현케 하였다.

한편 都市手工業者는 자유경쟁이 금지되어 있었으므로 생산규모의 확대가 불가능했다. 따라서 도매상제도의 발달로 인한 길드제의 붕괴는 수공업자들 사이에 자유농민들처럼 확대 재생산을 계획하는 도매상인층과 임금노동자층으로分化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더욱이 商業資本은 都市나 農村의 수공업자를 도매상지배하에 둔 곡물상인에 의하여 농촌에 진출하였다. 이러한 상업자본은 중세시대의 經濟社會가 근대화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역할을 수행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이 중세시대의 말기에 발생한 市民의 階層分化로 인하여 資本家라고 할 수 있는 富裕層과 소시민적인 中產層, 그리고 그 밑에 임금노동자계층이 존재하는 형태로 경제사회

36) 賀田弘作, 前揭書, pp. 114~115 ; 関錦泓, 前揭書, pp. 296~308.

의 구조적 개편이 이루어졌다. 임금노동자는 길드制의 봉과 더불어 산업의 발달에 따른 생산체계의 대규모화로 그 수가 날로 증대하였다. 그리하여 大資本家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특권적이고 폐쇄적인 中世都市의 길드的인 생산체제를 넘어선 資本主義的인 世界經濟의 출현을 예고하는 것이었으며, 都市를 대신하여 상공업의 발달을 촉진시킬 수 있는 보다 강력한 힘, 즉 王權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가고 있던 중앙집권적 통일국가의 등장을 요구하는 것이기도 하였다.³⁷⁾

3. 中世時代 英國會計制度의 成熟

古代社會의 회계적 유산을 이어받아 발달한 英國會計였지만, 아직 이익이나 손실에 관한 계산방식을 확립하기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당시의 會計는 로마人们이 資源이나 財產을 대상으로 이용한 會計責任의 표시방법에 지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로마時代의 한정적인 영업상태에서는 期間報告나 광범위한 소유권 및 근대기업의 필수적인 損益計算을 행하는 것까지는 이르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古代商業은 中世의 영국상업이나 회계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던 것이 사실이다. 중세영국봉건사회의 莊園會計, 길드會計 및 監查技術의 형성과 발달에는 商業的인 文物交流가 큰 역할을 하였다고 한다.

莊園經濟의 監視人은 신중한 회계기록과 보고상황을 검토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英國政府記錄의 공식적인 監查는 국왕의 徵稅記錄簿가 「파이프·롤」에 기재된 것을 단서로 검증하였음을 나타내었다. 더구나 中世의 봉건사회는 장원·길드·영주 등을 社會單位로 하여 部門化되어 있었으므로, 部門別로 비교적 안정된 경제활동을 할 수가 있었다. 이렇게 안정된 사회에서 경제실체의 會計記錄은 발전하게 마련이고 표준화를 향하여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中世時代의 영국회계가 어떠한 형태로든 발전하였다고는 할 수 있지만, 近代會計의 기본요인이 되는 損益會計에까지 발달된 것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中世의 英國會計는 中世時代의 海上貿易이 중심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損益會計의 發端은 유럽大陸의 해상무역중심지인 이태리의 여러 도시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 새로운 회계지식이나 상업계산은 複式簿記法으로서 中世이태리의 상인들이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용했던 것으로 보이지만, 그 무렵 영국에서는 이와 같은 簿記法이 사용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손익회계제도는 베니스式 複式簿記法이 전해진 16세기부터 헤아리게 된다. 英國에 이태리式簿記法이 소개된 최초의 문헌은 1543년에 런던에서 인쇄된 올드캐슬(Hugh Oldcastle)의 簿記書(Here Ensuet a profitable Treatyce, etc.)라고 한다.³⁸⁾ 그 후

37) 関錫泓, 前掲書, pp. 303~306.

38) 黒澤清,『體系 近代會計學 IV.-會計史および 會計學史』(東京, 中央經濟社, 1979), pp. 189~192.

부터 英國에서는 베니스式複式簿記法을 기본축으로 하는 회계제도가 정착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었던 것이다.

V. 結論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中世時代의 英國會計史를 언급하는 과정에서 회계발달사에 한정하지 않고 그와 관련된 유럽의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도 論述하였다. 그런데 中世會計는 제도적으로 통일되어 있지 않고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古代社會로부터 계승되어 中世期의 여러 나라로 이어진 것은 그 傳承된 나라마다 독특한 문화적 환경에 따라 알맞는 제도로 정착되었다고 할 수 있다. 會計史는 中世時代의 어느 나라의 文明에 한정하여 검토하느냐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될 수 있다. 中世이태리會計, 中世프랑스會計, 中世의 독일會計 및 中世의 英國會計 등이 그것이다. 本研究에서는 중세시대에 영국의 경제환경 속에서 발달해온 會計史의 모습을 정리하였다.

中世時代의 영국회계발달사에 관한 연구는 이 분야의 先達者인 브라운(Brown), 울프(Woolf) 및 차트필드(Chatfield)의 文獻에서 상세히 밝혀진 것을 중심으로 歷史性에 입각하여 언급하였음을 밝혀둔다. 古代社會의 會計가 中世社會로 傳承된 것은 사회적 경제구조가 농경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형태였으므로 국가형태나 정치구조가 변화되더라도 비슷한 경제구조 속에서 이루어지는 會計적 計算方式은 그 前時代의 것을 그냥 답습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회폐경제가 출현하기 이전부터 物物交換의 형태로 상거래나 국가재정에 관한 收支計算은 단순한 기록계산이 중심축을 이루었음이 사실이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단식부기의 원시적인 형태를 일컫는 것이다.

古代社會의 國庫會計나 教會中心의 會計方式은 中世時代에 이르러서도 국가재정과 教會運營을 위한 記帳方式으로서 傳承되었음을 찾아볼 수 있었다. 그리고 中世時代의 會計의 特徵으로서는 莊園經濟를 기반으로 하는 장원회계의 형성·발달이었고, 상공인들의 동업조합에 해당하는 길드組織에서 비롯된 길드會計가 古代社會의 會計에서 進一步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도 中世末期에 이르러 莊園經濟와 길드制度가 붕괴되면서 資本家階層과 中產層 그리고 임금노동자의 三階層으로 分化되어 經濟的 變革이 이루어졌고 資本主義의 경제구조로 탈바꿈하게 되었다. 그러한 물결에 편승하여 會計制度는 이태리式複式簿記法에 의한 記帳方式으로 전환하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다.

參考文獻

- ① 閔錫泓, 『西洋史概論』, (서울, 三英社, 1995).
- ② 李正浩, 『會計思想史』, (서울, 경문사, 1984).
- ③ 이희승, 『국어대사전』, (서울, 민중서관, 1971).
- ④ 山中謙二, 『西洋史』, (東京, 有信堂, 1961).
- ⑤ 濱田弘作, 『會計史研究序說』, (東京, 多賀出版, 1986).
- ⑥ 黑澤清, 『體系近代會計學VI.』, (東京, 中央經濟社, 1979).
- ⑦ 中野常男, 『會計理論生成史』, (東京, 中央經濟社, 1992).
- ⑧ 津田正晃・加藤順介, 『會計思想史』, (東京, 文眞堂, 1978).
- ⑨ 片岡義雄, 『ウルフ古代會計史』, (同庚, 邦光書房, 1960).
- ⑩ 小島男佐夫, 『英國簿記發達史』, (東京, 森山書店, 1971).
- ⑪ 村川堅太郎, 『世界史年表』, (東京, 山川出版社, 1964).
- ⑫ 矢口孝次郎, 『經濟史概說』, (東京, ミネルヴァ書房, 1959).
- ⑬ 片岡泰彦, 『イタリア簿記史論』, (東京, 森山書店, 1991).
- ⑭ 片野一郎, 『リトルトン會計發達史』, (東京, 同文館, 1973).
- ⑮ A. C. Littleton, *Accounting Evolution to 1900*, (New York, Russell & Russell, 1968).
- ⑯ Brown, R., *History of Accounting and Accountants*, (Frank Cass and Co., 1968).
- ⑰ Chatfield, M., *A History of Accounting Thought*, (New York, Robert E. Krieger Publishing Co., 1977).
- ⑱ Lavett, A. E., *Studies in Manorial History* (Oxford, Clarendon Press, 1938).
- ⑲ Green, W. L., *History and Survey of Accountancy*, (Brooklyn, Standard Text Press, 1930).
- ⑳ Woolf, A. H., *A Short History of Accountant and Accountancy*, (London, 1912, Reprinted, 1968).
- ㉑ Zimmerman, V. K., "British Background of American Accountancy", (Unpublished PH. D. Thesis, Univ. of Illinois 1954).

